

내용 요약

『네 명의 수도사 이야기』는 『아라비안나이트』처럼 미완성의 이야기를 서로 짜 맞추거나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. 작품의 중심인물은 터키의 아자드 바흐트(Azad Bakht) 왕인데,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 중세에 시달린다. 그러다가 궁궐을 떠나 은둔 생활을 하는데, 얼마 있지 않아 네 명의 방랑자를 만난다. 세 명의 왕자와 한 명의 부유한 상인은 초자연적인 힘에 이끌려터키를 향하고 있었다.

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난 다섯 명의 사나이들은 한밤중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야기와 요정 이야기, 오리엔탈 정원과 호화로운 잔치에 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데, 네 번째 방랑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내는 순간 바흐트 왕은 자신의 왕비중 한 명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기쁨에 겨운 나머지 큰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한다.

이 이야기는 원래 페르시아어 기록되었는데, 테첸(M. H. A. Tehseen)이 우르두 어로 번역했고, 이 우르두어 번역이 대중적이지 못했기 때문에, 1803년 암만(M. Amman)이 구어체 우르두어로 재번역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. 이후 1857년에 포브스(D. Forbes)가 이 이야기를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권에 이 이야기 가 소개되었다.